

## 한인이민교회 유형적 교회 아닌 선교에 힘쓰는 본질적 교회 해야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는 좋은 마을교회(구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를 만났다. 그는 교회 이름처럼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교회 놀이터에서 밝게 뛰노는 교회 아이들의 모습 때문인지 그의 모습이 더욱 편안해 보였다.

남가주에서 2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은 모두 알만큼 삼성장로교회는 유명한 교회였다. 1984년, 당시 29세였던 신원규 목사와 몇 가정의 합계 시작한 교회는 1990년대에 들어서자 무섭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남가주 이민교회에서 최초로 시작한 다니엘 특별새벽기도회는 실로 대단했다. 멀리 샌디에고에서 찾아올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매주 새신자들이 교회로 찾아왔고 한 주에 30-40명씩 몰려오기도 했다. 폭발적으로 교인 수를 늘려가던 삼성장로교회는 1천 500명까지 출석하는 남가주 초대형 교회가 됐다. 1990년대 한인교회 가운데 성도수 1천 명 이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LA 대형교회



좋은마을교회 사역과 창립 35주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신원규 목사

들도 500명에서 800여명 수준이었던 삼성장로교회는 더욱 유명세를 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교회는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교회가 사람들로 북적이지자 신원

규 목사는 1999년 라브라 지역에 있는 병원 건물을 교회당으로 매입했다. 650만 달러에 구입한 병원 건물은 11개 동이 있을 만큼 규모가 크고,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다. 사고 일어나면 가격이 뛰었고 10개월

만에 천만 달러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그리고는 2004년 기도원 건물을 또 사들였다.

신원규 목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평가했고,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꿈과 열정

으로 포장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은행에 매달 내야하는 15만 달러에 달하는 이자는 교회 재정의 한계를 부추겼고,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자 교회 건물은 하루 아침에 은행으로 고스란히 넘겨줘야 했다. 1500명이었던 교인들도 결국 150명까지 줄었다.

눈부신 교회 성장만큼이나 삼성장로교회의 추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그러나 신원규 목사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한다. 고통은 컸지만 그 일을 통해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 삼성장로교회는 교회를 잃고, 다른 교회를 얻었다. 외형적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를 잃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에 힘쓰는 본질적 교회를 얻은 것이다.

삼성장로교회는 2015년 교회 이름을 좋은마을교회로 바꾸고 선교적 교회 모델을 따라 선교에 초점을 맞췄다.

[5면에 계속]

## 국제독립교회연합회, LA에서 제4회 미국 목사안수식 개최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제4회 미국 목사안수식의 안수위원들과 안수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웨이크

국제독립교회연합회(설립자 박 하 웨이크)가 지난 13일 오렌지카준 목사, 총회장 정인찬 목사, 이 운티 하나교회(박종기 목사)에서

제4회 미국 목사안수식을 갖고 5명의 목사를 배출했다.

안수식에 앞서 웨이크 미주신학위원장 양광호 목사는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할 것 입니까?'(마 16:24-26)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영광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고난의 길임을 말씀하셨다"며 "누구든지 자기 육신에 소망을 가지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했다.

양 목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는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야 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며 "목사 안수를 받는 이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안문혁 목사의 목사서약 후 열반인 온누리교회 김성연 목사의 안수례를 시작으로 안수위원들이 신성근 목사, 이명훈 목사, 이필재 목사, 황다니엘 목사를 차례로 안수했다.

안문혁 목사의 공포 후 안수자를 대표해 인사한 신성근 목사는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사역

을 잘 감당하므로, 우리를 십자가의 귀한 보혈로 대속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안수식 인도는 사무총장 임우성 목사(암구정예수교회)가, 대표기도는 유성희 목사가, 헌금기도는 김종일 목사(남양주 주함교회, 웨이크 스테프)가, 축사는 안문혁 목사가, 특송은 조수연 사모(생수의강교회)가 각각 맡았다. 이어 안수자 이명훈 목사의 축도로 안수식을 마쳤다.

김진영 기자

**교수직, 안정적인 직업?**  
 -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매월 첫째주 토요일 개강**  
**연방정부 한국어교사(CIA)**  
**한국어 법정통역사, 번역사**  
**주말반 토, 일 세미나**  
 T:(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월드미션대학교**

**입학설명회 및 상담 세미나**

문의

(213)388-1000 | admissions@wmu.edu  
 www.wmu.edu

LA 캠퍼스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OC 상담대학원 7342 Orangethorpe Ave. #A103  
 Buena Park, CA 90621

참석자는 입학금 면제 혜택

**2019.7.25 (목)**

**이현아 교수**

자살 예방을 위한  
 위험신호 이해와 접근방법

LA 캠퍼스 7:00 PM - 8:30 PM

**2019.7.29 (월)**

**김경준 교수**

ADHD의 이해와 진단

OC 상담대학원 10:00 AM - 11:30 AM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 탈북자 중 82%가 여성 “상처입은 탈북여성 치유 위해 교회가 관심 가져달라”

## LA 챔버 콰이어 2019 여름 콘서트, 여성 탈북자 돕기 자선 음악회 성황



손인식 목사



LA 챔버 콰이어 2019 여름 콘서트, 여성 탈북자 돕기 자선 음악회

한국에 넘어온 탈북자가 3만 명을 넘었다. 이 중 70%가 여성이며 작년에는 무려 탈북자의 82%가 여성이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이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은 대개 중국 국경에서 이뤄지는 인신매매와 성매매와 같은 인권 유린과 노예생활이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했지만 탈북 과정에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고, 홀로 한국에 왔다는 죄책감 또한 지우기 어렵다.

로스앤젤레스 챔버 콰이어(Los Angeles Chamber Choir)는 지난 14일, 애너하임 세인트 토마스 한인 성당에서 여름 콘서트를 열고 한국 내 여성 탈북자들을 위해 평화와 자유를 노래했다. 또 UCT-KCCC 그날까지 선교연합(대표 손인식 목사)을 통해 이날 공연 수익을 여성 탈북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탁했다. 한인 교계에서는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가 이번 콘서트를 적극 후원하며 탈북자 사역에 힘을 보탰다.

손인식牧사는 “탈북여성들 대부분은 탈북 과정과 복송, 인신매매 등을 거치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남한 땅에 와서는 탈북 과정에서 겪어온 수치와 모욕, 분노들이 치밀고 올라와 심한 우울증과 자살충동에 시달린다”며 “탈북 여성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한국 교회와 한인 이민교회들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손 목사는 또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할 기본 자유를 노예처럼 박탈당하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빼앗긴 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형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을 전 세계로 알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전 세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특별히 중국 정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비인권국가라는 불명예를 벗게 하는 일

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꾸준히 강을 건너 중국으로 오고 있으며, 숨어서 복송의 두려움에 떠는 탈북자들이 누적되고 있다”며 “성노예와 인신매매 등 중국에서 인권을 유린 당한 채 살아가는 우리 동족들을 탈북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 하에 탈북자들을 동남아시아로 탈출시키거나 미국으로 건너오게 하는 조용한 사역들을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탈북 여성 힐링 사역은 망가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성령으로 치유받게 하는 통일사역으로, 이 사역은 통일 후 대규모로 확장되어 북한 땅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며 “서독과 동독의 경우처럼 예상을 깨는 전격적인 통일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도록 통일의 오직 한 분 응답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사우스베이 한인 목사회 7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한 목회자들이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우스베이 한인목사회 7월 정기예배 드려

사우스베이 한인목사회(회장 이상훈 목사)는 지난 10일(수) 토랜스조은교회(김우준 목사)에서 7월 정기예배를 드리고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경일 목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우준 목사의 설교, 이상훈 목사의 광고, 안병권 목사의 축도로 드려졌다. 김우준 목사는 욕기 1장 20-2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고난을 당할 때

한 순간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깨달은 후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며 “그 후부터 하나님께 나의 미래와 삶 전체를 맡기고 살게 되었다”고 자신의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했다.

한편 2019 연합찬양제는 오는 10월 6일(주일) 토랜스조은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오는 9월 정기 모임은 울타리선교회(나주옥 목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 2019 미주예성 목회자 가족수양회 열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예수교미주성결교회 목회자 가족수양회가 열렸다.

예수교미주성결교회 미국서남지방회 목회자 가족수양회가 지난 7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엘림유황온천 수양관에서 열렸다.

30여명의 지방회에 소속된 목회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양회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박순탁 목사(뉴저지 섬기는 교회)가 주강사로 참여해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박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지금까지 이면목회를 하며 받은 은혜와 경함을 진솔하게 나누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강조해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이날 참석한 엄인애 목사는 “은혜롭고 감동적인 수양회였다”며 “영육간에 기쁘고 행복한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의: 양흥규 목사(714-852-8485)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내 교회 창립예배초청** YouTube 가정교회

요한 계시록 아가서 다니엘

**드디어**  
 \* 새로운 교회 창립  
 \* 새로운 설교 그림으로  
 \* 새로운 교인 (YouTube 예배)

**내교회(My Church) 지역별 창립예배일정**  
 1. OCLA 7월 2. 뉴욕, 뉴저지, 워싱턴, 필라, 조지아: 8월  
 3. 한국, 베트남, 하와이 중국 캐나다: 9월 10월

**담당목사:** 알라바마,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필라, (각지역) 아틀란타, 달라스, 하와이, SF, LA, 한국, 베트남, 중국

**내교회 창립 초청인:** 김상범박사 남문기회장 이병만장로 한기형 목사 이서목사 남철우목사 김관진목사 김근수목사 독고원목사 김중대회장 김진모회장 이종렬총장 정가진총장 이상명총장 샘신목사 노섭회장 박영선의원 캐롤리누스타 오현근회장 이태섭회장 민김회장 김태수장로 김성대목사 임덕순장로 김영찬목사 이영희회장 노을래장로 주수경회장 김영대회장 이호우회장 더글라스김목사

**내 처치(My Church) 창립을 축하합니다**

**김영대 목사** 크리스천리더스아카데미 원장  
**이호우 목사** 전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회장

**무명목사 TV설교, 폭발적 시청률 1위**  
 1,000번 이상 계시록 읽고 쓰고 그리고  
**장소:** 갈보리 선교교회(심상은 목사)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일시:** 7월 27일(토요일) 5시  
**연락처:** 남상국목사 (949) 285-7242



월드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개최된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30주년 음악회



감사인사를 전하는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총장



수준높은 지휘로 음악회의 품격을 높인 윤임상 교수

#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30주년 음악회 “축제, 감사, 희망의 무대 선사”

### “변화하는 시대를 리드하는 월드미션대학교” 주제로 웅장한 무대 선보여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지난 16일, 개교 30주년을 맞아 월드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축제의 무대, 감사의 무대, 희망의 무대로 구성된 이번 음악회는 월드미션대학교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클래식과 정통 재즈음악으로 수준 높은 음악적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최 정성급 연주자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월드미션대학교 동문들의 탁월한 연주로 음악의 향연이 연출됐다.

음악회 하이라이트인 희망의 무대는 월드미션대학교 재학생들이 뛰어난 기량으로 채영석 작곡가의 창작 칸타타 ‘요셉’을 통해 “변화를 리드하는 월드미션대학교”를 주제로 역경

과 시련을 이겨낸 학교의 밝은 미래를 제시했다.

특히 화려한 합창단과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완성도를 높인 희망의 무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요셉과 학교의 모습을 그려 내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국악적인 음계를 사용한 멜로디 사용으로 서양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들려지는 국악풍의 음계가 아름답게 조화되는 시도가 돋보였다.

임성진 총장은 “개교 3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까지 본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개교 30주년을 맞아 월드미션대학교를 설립하신 고 임동

선 목사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설립 정신을 기억하며, 국제화 시대에 세계 유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기독교 종합대학교로의 노력을 그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를 준비한 윤임상 교수는 “월드미션대학교에 음악과가 설립된 이래 지난 15년의 모든 결과물을 압축해 교수들과 동문, 재학생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축제와 감사와 희망을 연주한 시간이었다”며 “제한된 시간으로 좋은 실력을 갖춘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울 만큼, 월드미션대학교가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통해 훌륭한 음악인들이 많이 배출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 설교가 바뀌면 예배에 은혜가 넘친다!

### 오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가든스위트 호텔

카이로스 미니스트리 아카데미(Kairos Ministry Academy)가 주최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본지가 후원하는 제1차 LA지역 원포인트 강해설교 세미나가 오는 7월 29일(월)부터 30일(화)까지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든스위트 호텔(Garden Suite Hotel)에서 열린다.

원포인트 강해설교란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설교로, 성경 본문의 핵심인 원 포인트로 흘러가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감동적인 설교다.

강사로 나서는 신성욱 교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드라마틱한 설교 원고를 작성의 이론과 실제, 인문고전과 설교,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설교 작성 전략을 강의할 예정이다.

신성욱 교수는 종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M.Div.)을 공부하고,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에서 구약학 신학석사(Th.M.), 칼빈신학교에서 신약학 신학석사를 공부했으며 남아공에서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틀간 호텔식 점심식사와 강의의 이 제공되며 참가비는 \$100, 사전 등록 시 \$90로 할인된다. 참석 대상은 신학생, 목회자, 사모, 선교사이다.

한편 신성욱 교수는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미국에서 구약학과 신약학으로 석사학위(Th.M.)를, 남아공에서 수사학적 설교(Univeristy of Pretoria)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저서로는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의 삼중주(생명의말씀사)》, 《다빈치 코드가 뭐길래?(생명의말씀사)》, 《성경 먹는 기술(규장)》, 《이동원 목사의 설교 세계(생명의 말씀사)》 등이 있다.

문의: 818-200-3807  
주소: 681 S. Western Ave, LA, CA 90005



신성욱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 실천신학)

## ANC 온누리교회 장학생 모집

ANC 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는 2019~2020년도 대학 혹은 대학원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생(석사/박사 과정 포함)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교회는 일반 장학금은 1인당 1

천 5백 달러에서 2천달러를,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

녀, 신학생, 특별장학금으로 1인당 2천달러를 지급한다.

신청은 웹사이트 [www.ancsf.us](http://www.ancsf.us)에서 8월 24일(토)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 [ancsfug@gmail.com](mailto:ancsfug@gmail.com)

# 살롬장애인선교회 “제16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음악회 개최



제16회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에서 연주하는 남가주농아교회 수어천양팀

1999년 6월 설립되어 남가주는 물론 지구촌 장애인 선교를 위해 헌신해 온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지난 14일, LA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장애인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연례 자선음악회인 “휠체어 사랑 이야기”를 개최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휠체어 사랑이야기 행사는 소프라노 이영주, LA 지역 한인 남성 합

창단 LAMMC, 남가주농아교회 수어천양팀, SDM찬양팀이 아름다운 선율로 은혜를 전했으며, 배우는(15세)양이 휠체어 탄 채 연주를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살롬장애인선교회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마련된 기금으로 9월 중 아프리카 우간다를 비롯해 2개국의 장애인 3,000명 이상에게 필요한 휠체어와 기타 의료보장구들을 선적해 보내는 “제42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모세 목사는 “살롬장애인선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41차에 걸쳐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프로젝트를 통해 휠체어 12,326대, 기타 의료보조기구 약 51,212점을 선적해 14개국 63,400여 명의 지구촌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왔다”며 “앞으로도 선교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된 장애인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어(Search) 섬기는(serve)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박사/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증서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툰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뉴스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http://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월드미션대학교 2019년 가을 학기 신입생 모집

오는 7월 25일(목), 29일(월)  
LA 캠퍼스, OC 캠퍼스에서 입학설명회 개최



월드미션대학교 전경

월드미션대학교가 2019년 가을 학기 신입생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오는 7월 25일(목) 오후 7시 LA 캠퍼스에서, 29일(월) 오전 10시 OC 캠퍼스에서 각각 개최한다.

ATS(기독교신학대학원협의회)의 한인 신학교 최초의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월드미션대학교는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전공의 학위 과정과 유아교육, 가정사역, NGO사역 등의 수료 과정이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양질의 온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정규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1-20 발급, 유학생 장학금을 비롯, 목회자/선교사 장학금과 정부 그랜트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입학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입학금 면제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입학 설명회는 상담 세미나도 함께 진행 돼,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엘에이 캠퍼스에서 진행될 입학설명회에는 자살 예방 상담가이자 한국CISM연구소 부소장인 이현아 교수가 나서 "자살 예방을 위한 위험신호 이해와 접근 방법"에 대해 강의하게 되며, OC캠

퍼스 입학설명회에는 한인기독교 상담소 소장이자 월드미션대학교 교수인 김경준 교수가 "ADHD의 이해와 진단"이란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기독교 종합대학으로 특별히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은 월드미션 대학교는 설립자 임동선 목사의 "세계는 나의 목장이다"라는 목표와 신념 아래 1989년 3월 27일 설립됐으며,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적 훈련과 학문으로 오늘까지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 기독교 정신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을 양성해 미서부의 대표적인 종합 대학교로 발돋움할 길 힘쓰고 있으며, 기독교대학 연합회(ABHE), 신학대학원협의회(ATC) 정회원 신학대학으로 신학, 음악, 상담, 온라인(수료증,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개설돼, 현재까지 1,005명의 졸업생이 목회자, 선교사, 교회음악사역자, 목회 상담가, 평신도지도자로 사역하고 있다.

입학 설명회 관련 문의는 213-388-1000, admissions@wmu.edu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 “지옥의 단편”이 전하는 불행의 현장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술주정뱅이를 만나 깜짝 놀라시며 물으셨습니다. “네가 절름발이었을 때 내가 고쳐 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님이 내 다리를 고쳐 주셔서 걸어 다녔지만 살길이 막막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다리가 멀쩡해서 구걸할 수도 없었습니다. 살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화투에 술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알콜 중독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거리를 방황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 알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간음 현장에서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출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 당황하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다시 창녀가 되었느냐?” 그녀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를 그때 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저자거리에서 강패가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놀라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 강패가 “예수님! 저는 본래 앞 못 보는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지요. 그런데 보면 무엇합니까? 온 세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상이 다 썩은걸요. 그래서 화풀이로 다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제 인생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일랜드 출신 천재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소설 “지옥의 단편”이라는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 작품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재가 지옥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이 불행의 서식지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둠의 세상을 맞이합니다.

멕시코 어느 지역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나오는 신기한 곳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솟아오르고, 바로 옆에는 얼음물과 같은 냉천이 솟아오릅니다. 이 지역 여인들은 이곳에서 빨래를 한답니다. 온천물에 옷을 삶고 냉천에서 헹구면 빨래가 깨끗하답니다. 따라서 아주 인기 있는 빨래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래하는 장면을 지켜보던 관광객이 “이곳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을 한 곳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네요?” 이 말을

들은 안내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뇨! 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누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인간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특별한 결심과 다짐이 없으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성경에도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환자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아와 머리 조아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10분의 1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평균비율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결심해야 합니다. 감사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고,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불행 제조업이라면 감사는 행복의 진입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천국의 향기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들입니다. 감사는 은혜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더 감사하여 더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은혜, 감사 그리고 행복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 남가주 한인 목사회, 남가주 원로 목사회에 협력 당부



감사인사를 전하는 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 김관진 목사

및 관계자 50여 명을 초청, 다이아몬드 부패에서 오찬을 대접했다.

원로 목회자들이 모여 우의를 다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남가주 한인 원로 목사회는 정기 모

김관진 목사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가치관인 충효사상에 입각해, 후배 목회자들이 선배 목사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사했다. 이에 원로 목사회 회장 이국봉 목사는 “현역 후배 목사들의 격려를 받으니 힘이 난다”면서 “현역 목회자를 돕는 원로 목사회가 되겠다”고 답했다.

한편 남가주 한인 목사회는 후반기 사역 일정으로 지역사회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유익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남가주 한인 목사회(회장 김관진 목사)는 남가주 원로 목사회(회장 이국봉 목사)회원

임을 갖고 있으며, 이날 남가주 한인 목사회가 원로 목사와 사모들을 예우하는 시간으로 초청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존킴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팔지 1개 - \$20  
30개 이상 주문시  
우편 등으로 배달합니다.  
문의: World Share USA 강태광 목사  
(323) 578-7933

**투찌에 마을에 희망을!**  
세계 최빈국 아이티의 빈민촌 투찌에(Truitier)마을!  
쓰레기 마을에 형성된 투찌에 마을!

쓰레기 더미위에 세워진 투찌에 마을을 살리는 희망의 팔지를 판매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일감을 주고, 아동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주는 팔지 판매 프로젝트입니다. 주민들의 노동비, 재료비, 탁송비 등을 제외한 판매 수익금은 투찌에의 학교 건립과 투찌에 주민 생활 개선에 사용 될 것입니다. 투찌에 학교건물은 주일에는 교회로, 야간에는 장년 교양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찬양집회**

월드쉐어 USA 홍보대사  
전용대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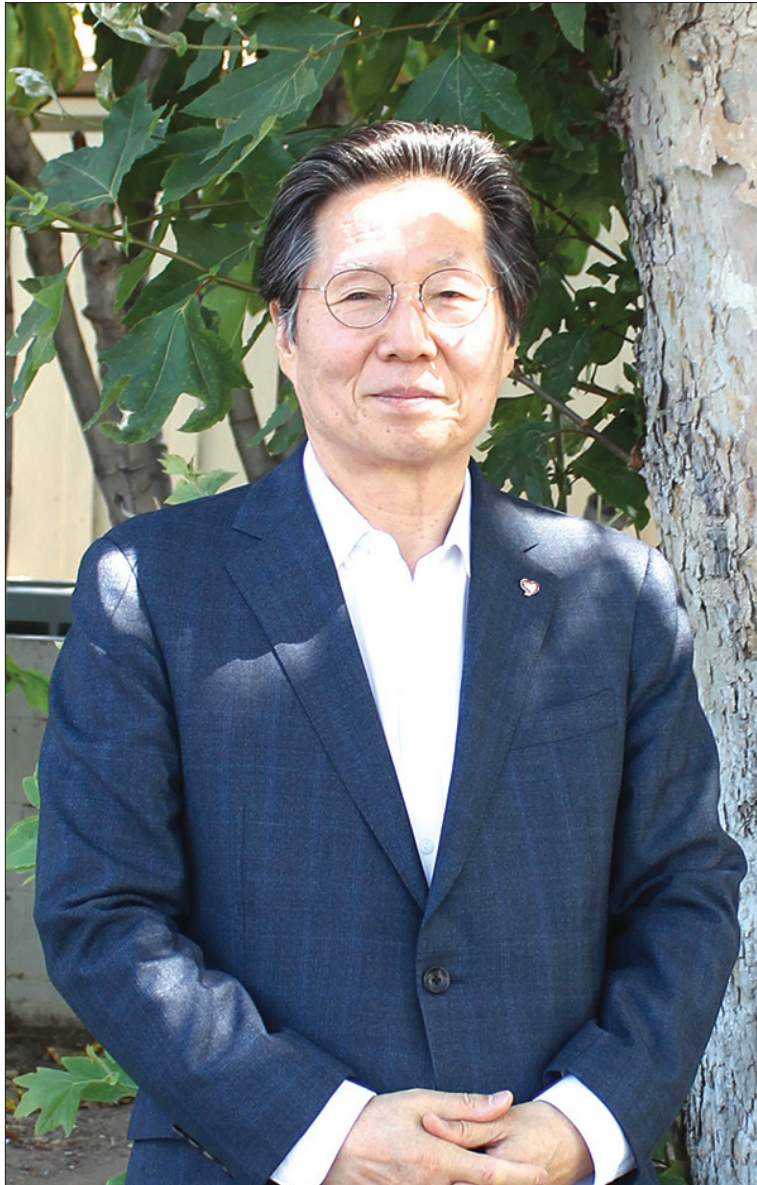
2019. 7. 17(수) 오후 7:30  
LA 예은 교회 객관섭 목사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2019. 7. 19(금) 오후 7:00  
LA 평화 교회 김은목 목사  
2538 W Pico Blvd, LA, CA 90006

[1면 “한인 이민교회 유형적 교회 아닌...” 이어]

# “내가 원했던 교회는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 얻었지요”

## [인터뷰] 좋은마을교회 신원규 목사



신원규 목사는 한인 이민교회가 유형적 교회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에 힘쓰는 본질적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교회는 예배당을 잃은 후 8년 전 고아사역을 시작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인도, 케냐, 코트디부아르 등지에서 먹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들 326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있다. 또 7년 전부터는 제 3세계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PM(preaching ministry)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교회가 오래 전부터 펼치던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훈련 사역 GOG(Garden of Grace)도 순항 중에 있다.

신원규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낫추시고 겸손하게 다시 교회를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였다”며 “이번 창립 기념일에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와 감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좋은마을교회는 오는 9월 7일(토)부터 8일(주일)까지 창립 35주년을 맞아 MKW 고아사역 8년차 이사회 대회, PM 7년차 사역 감사 예배, GOG 영성사역 28주년 감사

예배를 가질 예정이다. 이하는 일문일답.

**-힘든 시간들을 겪은 후 2011년 선교적 교회를 선포하며 새롭게 시작할 것을 다짐했다. 이후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우리 교회가 교회당을 잃고 떠나온 지 10년 가까이 됐다. 교회를 잃고 밖으로 나와보니 정말 예수님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특별히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고아들이 먼저 보였다. 그래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인도, 케냐와 서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고아 326명을 돕고 있다. 마이리키월드 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교회에서 한 아이에게 30~35불을 후원하면 현지 선교사가 식품을 사서 가정에 가져다 준다. 후원 아동으로 인해 한 가정의 음식을 먹게 된다.

또 PM(preaching ministry)라고 현지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을 열심히 해왔다. 일반적으로 목사 혼자 가서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 집사 장로들이 함께 가서 평신도의 관점에서 교회 안내부터 행정, 목회를 전반적으로 돕는다.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 회기 100명을 대상으로 4학기 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PM은 미얀마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래 전 미국 북침례교회에서 양곤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던 적이 있다. 군부독재시절 교회 소유였던 병원과 학교가 몰수됐었는데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지하교회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고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다. 침례교회가 대다수라 장로교 목회자가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1년 가량의 오랜 인터뷰를 통과하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양곤지역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우리교회가 1992년도에 1기를 시작으로 27년 동안 진행해 온 영성훈련 GOG(Garden of Grace)도 선교지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중동의 선교사들을 비롯해 남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전세계에서 진행돼 왔다. 한국에서는 1997년도에 놓여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교회 GOG를 경험한 사람들이 1200명일 정도로 많은 목회자들을 섬겨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모든 교회의 초점을 선교에 맞추고 구제와 복음전파, 목회자 양성 및 훈련에 맞춰왔다. 교회 건물 유지와 관리에 쏟아야 하는 에너지가 선교로 옮겨졌고 나부터도 개혁 초창기처럼 성도들을 더욱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됐다.

**-교인들의 반응은 어떤가?**

“예전에는 교회가 커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일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교회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어 좋아한다. 선교에 집중하면서 부터는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감사해 한다.”

**-교회 건축에는 여전히 회의적인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 예배당 가운데 75%가 공간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 교회가 외형을 중시하는 가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교회는 성도가 모이면 교회부

터 지으려는 생각이 아직도 강하다. 또 예배를 많이 만들면 좋은 줄 안다. 100명 모이는 교회가 4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봤는데, 본질이 중요하다.

교회는 양떼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건물을 짓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회 건물을 짓고 교인들이 다 떠나고 없으면 그 교회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 중세 사회와 같은 타락이 만연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에서 자유롭게 되고, 상한 부분이 있다면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회가

**-한인 이민자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한인 교회의 미래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인 이민교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 한인 이민 교회의 미래를 회의적으로 보진 않는다.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흩어져있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한인들도 세계적으로 흩어져있다. 하나님께서 전세계로 퍼져있는 한국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한인 이민교회가 개선할 부분은 목회자들의 권위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자의 권위를 과도하게 세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한국적인 전통으로 자신의 의견을 성도들에게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합리주의 문화에서 성장했다. 권위로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한인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다. 오늘날 한인 이민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사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민 교회가 1980년도 후반에는 선교의 바람이 불었다. 교회가 경쟁적으로 선교하던 시절이었다. 1990년도에는 교육으로 관심이 옮겨졌다. 교회가 교육관을 세우는데 상당 상태가 왔다. 교회가 물론 선교도 열심히 해야 하고,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 그런데 모든 것의 근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근본이란 ‘목회자의 마음속에 소외된 사람들이 모두 담겨지는 것’이다. 교회가 커지면 저너머 성도들에게 전화 하는 것이 귀찮아진다. 이민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영

혼을 가슴에 담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목회자가 아니다. 성도의 머릿수가 돈으로 계산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 목회자의 생각과 사명과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목회자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한다. 오늘날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일은 무엇보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충만하게 회복하는 일이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주한인교계에 대형교회 하나가 나타나면 수많은 중소형교회는 문을 닫게 된다. 우리교회도 한 주에 3-40명씩 몰려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중소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의 아픔을 몰랐다. 그러다 교세가 기울고 성도들이 나가는데 그 아픔을 알고 가슴으로 느끼게 되더라. 한창 교만하던 시절 교회가 부흥하니 100명 이하 교회 목사님들하고는 교제도 하지 않았다. 목사라고 했지만 마음의 철이 늦게 들었고, 주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지니 우리 주님의 마음 ‘겸손’을 알게 되는 것 같더라.

나에게 30대가 주어진다면 진정한 주님의 목회를 다시 해보고 싶다. 눈에 보이는 유행적인 것에 목회의 사활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걷고 싶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신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도 일을 하신다. 우버 운전도 많이 하시는데 목회자가 삶의 터전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유행적인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가 목회다. 우리 삶이 목회자가 될 때, 더욱 성도들의 마음의 깊은 곳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좋은마을교회는 계속 선교적교회를 지향하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치과의사가 되어 의료선교를 펼치고 싶다. ‘지금 65세로 의사가 되면 70세인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동참하고 싶다.”

김동욱 기자

# 2019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ATS 종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종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김학성담: 조경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aeu.edu

**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l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나실인의 사명 1

사사기 14:5-1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거두어들이신 백성에게는 반드시 용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받아들여 일군으로 삼으시기까지는 그 백성을 두고 반드시 이루어 내셔야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기 마련이고 그 일은 스가랴 4:6에 "...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하신 말씀과 같고, 사도행전 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이 태어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삿 13:3-5)"고 말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13:24-25에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했으며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와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자라나서 실질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어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성령을 충만히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실현되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삼손은 사명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일러준 것같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사사기 13:1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는 말씀처럼 20여 년 전부터 블레셋이 쳐들어와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답나를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답나로 내려가다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네 형제들의 딸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며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14:4과 같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하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습니다. 사사기 14:4 하반절에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는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여기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손이 이 여자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해방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결국 그 부모가 이를 허락하고 함께 답나로 내려가며 생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5절의 포도원은 교회, 즉 국가 단위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어린 사자는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블레셋을 사자와 같이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포도원에 이르니 사자가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인으로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답나로 내딛었는데 그 사명 감당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을 가해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자리 잡고 행세하는 사자를 죽여 없애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 맨주먹으로 사자와 대적하기 시작하자 여호와와 신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맨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이것은 나실인으로 택하고 구속한 이가 하나님하시고 삼손에게 사명을 맡긴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사명감만 투철하다면 그것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확인시켜 주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포도원을 장악하고 있는 사자를 죽

인 것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블레셋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예조(豫兆)와도 같은 것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삼손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다시 답나에 가면서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취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도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꿀이 어디서 났는지 말하지 않았습

니다. 그 당시 풍속에 따라 칠일간 삼손의 아버지가 블레셋으로 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삼십 명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어 "잔치하는 칠 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운 삼십 벌과 같듯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운 삼십 벌과 같듯 삼십 벌을 줄지니라"했고 그들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며 자신이 죽인 사자를 일컫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삼 일이 되도록 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의 아내를 협박하여 삼손에게서 답을 알아내게 합니다. 결국 제 칠일 해지기 전에 삼손에게 그들은 정확한 답을 말하게 되고 삼손은 뒤늦게 깨닫고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삼십 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

게 주었다고 했습니다(삿 14:19-20).

여러분들은 모두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이 지구 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남자와 여자의 영적 소속이 분명히 다를 때는 신앙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진리의 기밀을 보안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인 삼손은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블레셋에 속한 여인으로 영적으로는 상반된 입장의 사람이었기에 사명에 열중하지 못하게 되고 여색에 빠져 신세를 그르치는 폐단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 소속이 달랐던 여인임에도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 이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삼손의 그릇된 계산이 패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이의 사람들보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통한 신앙을 변질시키고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구속 받은 나실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 또한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과정으로 성취시켜 드려야 합니다. 삼손과 같이 사명 성취를 위한 목적으로 그릇된 생각과 방법을 사용하여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Academic Year 2019-2020

# ANC 온누리 장학생 모집



- 접수기간** 2019년 8월 24일(토) 까지
- 지원자격** 2019-20년도 대학 혹은 대학원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생 (석/박사 과정 포함)
- 장학금** 일반장학금 - \$1,500 ~ \$2,000/1인당  
MK/PK/신학생 특별장학금 - \$2,000/1인당  
특별장학금 - \$2,000/1인당
- 지원방법** www.ancsf.us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받습니다.)
- 결과발표** 2019년 10월 13일 ~ 10월 15일 (email로 개별 통지)
- 장학금 수여** 2019년 11월 3일(주일) 5:00pm / ANC 온누리 교회

자세한 내용은 ANC 장학회 웹사이트(www.ancsf.us)를 참고해 주세요. (문의: ancsgug@gmail.com)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풍성한 열매를  
Being One With Christ, Bearing Abundant Fruit  
(요/John 15:5)



A N C S C H O L A R S H I P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SUMMER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담임 목사 청빙

아리조나 피닉스 서쪽에 위치한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에서는 20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신 조정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자격
  1. 정규 신학 대학, 또는 대학원이상 졸업하신 분
  2.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3. 미국 체류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목사 안수 증명서
  3.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4. 자기 소개서
  5. 최근 설교 CD
  6. 추천서

- 제출 방법
  1. 청빙 위원회 이메일 (jungeun.park1014@gmail.com)
  2. 우편 (430 N. Lewis St., Mesa AZ 85201)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1일(화)

■ 연락 : T.(480)435-0998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 반석교회, 교단탈퇴와 성전건축 과정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맛보다

## 애틀랜타 반석장로교회 박성만 목사

콜럼버스에 위치한 반석장로교회가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은 믿음으로 내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민족을 품고 베푸는 교회'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1985년 박성만 목사 가정을 중심으로 개척된 반석교회는 두 번의 성전 건축을 진행했고, 두번째 건축을 진행하던 중 '동성애 안수'에 동의한 기존 교단으로부터 탈퇴를 감행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흥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몇 번의 인터뷰 요청 끝에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한결 편안해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던 박성만 목사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잘나서라던가 의로워서 탈퇴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서두를 댔다.

그는 "사회적으로 결혼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자유로워지고, 신학적으로까지 동성애 안수가 인정돼 가는 과정을 보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에 안타까움을 넘어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다. 기존 교단 탈퇴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남은 '양심'의 자유'를 위해 가슴 한 칸을 도려내는 듯한 결단이었다. 기존 노회 목사님들도 다 몇 십년 된 친구들로 서로를 아끼고 끔찍히 사랑했고, 물론 지금도 좋은 교제를 갖고 있다. 서로를 속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에 각자가 처한 목회 현장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했고, 그들의 배려로 최소한의 손해만 감당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반석장로교회는 복음적인 장로교단인 ECO(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에 속해있다. 미국 내 380여 교회가 가입해 있으며 그 중 한인교회는 20여 교회로 종로나 행정 중심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선교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 교회 재산권과 처리권은 각 교회에 일임하고, 정기적으로 모여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 교육과 장로 교육 등을 주로 제공한다. 교회에 많은 권위가 부여된 만큼 가입이 쉽지 않은 편인데, 목회자와 장로들의 신앙과 신학을 몇 차례에 걸쳐 철저



콜럼버스반석장로교회 박성만 목사 부부

시 개척교회 목사에게 사례비를 보조하고, 건축에도 쓴 이자로 용자를 해주곤 했는데 우리는 비록 소수인종 중심의 교회지만 베푸는 교회가 되고자 했던 비전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헌신해 기금을 마련해 왔다. 노회에 빛이 없는 것이 이번엔 큰 도움이 됐다."

교회는 30년전 손수 지어서 예배드리던 남쪽 지역의 예배당을 6여년 전 떠나며, 흑인 교회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마음으로 비좁게 다 놓고 북쪽으로 올라왔다. 60이커 넓은 대지에 위치한 극장 건물을 사서 레노베이션을 진행해 곧 4개의 예배당과 34개의 교육실을 갖춘 비전건물 공사가 마무리됐다. 교회가 사용하기엔 비전건물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청소년을 품어 안아야 한다는 비전으로 체육관과 친교실, 예배당 건축을 진행했고, 기공예배를 드리고 은행 론이나와 본격적으로 건물을 올리기 전 탈퇴를 결정했다. 돌연 이 소식을 접한 은행 측에서 노회가 아닌 교회만 믿고는 돈을 줄 수 없다고 나와 어쩔 수 없이 건축이 중단되는 시련이 닥쳤다. 탈퇴의 향방도 결과도 확실할 수 없는데다, 건축 중단으로 건축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350명 교인 모두가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숨죽이고 지켜보는데,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건축회

도하게 됐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도 나누게 하셨다. 우리와 비슷한 때 탈퇴를 진행했지만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나오지 못한 교회를 떠난 70명의 백인교우들의 모임인 그레이스 처치를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품었다. 지역 유지인 백인 할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이런 소수인종 교회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지 감동하며 감사해 했다. 어려움 가운데 건축한 체육관은 커뮤니티를 위해 거의 매일 문을 열고 있다. 8월 중순부터는 문제가 많아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는 K-5학년 학생들을 품어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크리스천 사립학교(Truth Spring Academy)에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렸다. 이민 교회지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자 말씀을 따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이다."

처음 시작부터 다민족교회를 지향해온 반석교회는 교회 한국어 이름에도 '한국'이라는 단어가, 영어이름에도 'Korean'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다. 이는 코리언 아메리칸이 됨을 부끄러워함도 아니요 더욱이 무시함도 아니다. 오히려 언어와 문화와 인종의 차별을 극복하고 교회의 본질에 더욱 충성하기 위함이며,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도 들어와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다. 한인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누리면서 타민족을 품어 안고 즐길 수 있는 다양성의 풍요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예수의 피흘리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성도들 가운데 백인 25명, 흑인 15명, 비한국계 아시안 3명 가량이 적을 두고 출석하고 있고, 당회에도 백인과 흑인 장로들이 함께 하며 모든 당회와 제직회는 영어로 진행된다. 예배는 11시부터 30분간 찬양과 경배를 이중언어로 진행하고 이후 흠뻑 어져 모국어로 설교 말씀을 듣는다. 모든게 35년전부터 이어진 자연스러운 전통이다.

"저의 작은 꿈이 있다면 반석교회가 다민족 교회로서 모든 민족을 복음 안에서 품고 하나됨 성장하는 교회다. 그레이스교회가 얼마전 기공예배를 드리고 1년 안에 건축을 완공하고 나가면, 중국계 교회나 라틴계 교회 역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섬기고 싶다. 체육관에는 평일 내내 지역 청소년들이 찾아오고, 주말에는 배드민턴팀도 와서 연습한다. 다양한 지역사회 섬김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민교회로서 청소년과 다민족을 품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앞으로 반석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반석같은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는 한편, 열린 마음으로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선교의 비전을 이어갈 것이다." 앤더슨 김 기자



콜럼버스반석장로교회

히 검증하고 시험까지 치른다. 교단에는 각 교회에서 전체 예산의 1%를 선교 교육비로 낸다. 반석교회는 기존 교단 탈퇴에 2년 가량, ECO 가입에 1년이 꼬박 걸렸다. 3년의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과정이 어땠을까?

"우선은 어려움을 겪어 나가며 하나된 마음을 갖자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교육하고 기도했다. 기존 교단 탈퇴를 위해 전체 공동의회를 두 번 통과해야 했다. 1차는 담임 목사가 사회를 보는 공동의회로 이것이 통과되면, 6개월 후 노회 총무가 와서 사회를 보는 2차 공동의회를 진행하는데 담임 목사는 참석할 수 없다. 둘다 2/3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처음 투표할 때 96%, 두번째는 98%로 통과됐다. 34년전 기존 노회 가입할 때부터 당회에서 결단한 것이 돈을 빌리지 말자는 것이었다. 노회는 당

사에서 교회가 아닌 노회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건 것이다. 다급해진 노회는 박 목사를 등 떠밀다 시교 회회를 내보냈다. 2년치 선교비 1만불을 주고, 건축 지연으로 어쩔 수 없이 손해 본 20만 불이 있었지만 모든 게 잘 마무리 된 후부터 바로 건축을 진행해 1년 만에 완공했다. 시작할 때부터 될 것이라 믿었고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마음은 늘 평안했지만, 행정적으로도 일이 어그러지 않고 잘 진행돼야 한다는 긴장감에 박성만 목사는 몸무게가 15 파운드나 빠졌다. 하지만 성도들은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길이 열리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며 출애굽의 현장을 성도들 모두 함께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하나되고 뜨겁게 기

# 가이아 동충하초

처음에는 곤충으로 있다가 여름에는 버섯으로 피어난다 하여 동충하초(冬蟲夏草)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동소령이 94까지 장수하기 위해 가장 즐겨먹던 음식.

- 다른 성분은 일체 넣지 않은 100% 동충하초 분말
- 한국 가이아 팜에서 재배한 유기농 동충하초를 미국으로 직송
- 코디세린이 풍부한 21세기 천연항생제
- 한국 식약처 인건 검사됨 (No. 2013-0372219)

### 면역세포증식 치매예방 당뇨 성기능 증진



## 구입 문의 213.434.1170

PRO-Z USA Inc. prozusa1@gmail.com  
프로지 유에스아이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샷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 T:(562) 383-3566



# '그림 일대일 전도양육'으로 복음 전도에 큰 도전받고 결단



김넷 본부에서 열린 '그림 일대일 전도양육 세미나'

김넷(KIMNET,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 대표회장 호성기 목사) 주최 '그림 일대일 전도양육 훈련 세미나'가 김넷 본부에서 열렸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그림 일대일 전도양육 저자로 강사로 나선 송상철 목사(애틀랜트새한장로교회)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구에게나 쉽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서두를 뒀다. 이어 "전도를 위한 고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그림 일대일 교재를 만들었고, 12주 과정 훈련을 통해 목회 현장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교회를 넘어서 일년에 2천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구보다 성도들이 전도자로 세워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3분

의 2 이상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새한교회에서 훈련받은 4명의 전도자들이 함께 해 전도의 간증을 더했다.

김넷 관계자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넘치는 은혜 가운데 회개와 결단하는 귀한 세미나였다. 무엇보다 다들 크게 도전 받았고, 목회자들은 새로운 비전과 복음의 능력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세미나는 사람의 귀를 즐겁히는 하는 강연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영과 혼과 관절을 찢어 쫓는 날선 검이었다고 고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앤더슨 김 기자

## 서북미 목회자 대상 첫 아버지학교 학교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가정 회복과 가정에서의 올바른 아버지 리더십 회복을 주도해온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서북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 1기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개설한다.

오는 8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에서 진행되는 '서북미 목회자 아버지 학교'는 평범한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픔과 약점을 털어놓고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다. 또한 우리사회의 남성문화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참된 '아버지의 사명'과 '아버지의 영성(靈性)'을 배우는 시간이다.

또한 아버지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재조명을 통해 올바른 아버지상을 정립하고 신뢰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아버지학교 미주 본부 지도 목사

이자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권준 목사는 "가정의 정의가 흔들리고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가 무시되는 이 시대에 남성들이 일어나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 세우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정확한 길을 인도해야 한다"며 "특별히 이번에 마련된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초대했다.

이번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준비하는 이병일 목사는 "목회자 아버지학교는 교회 목회자인 동시에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며, 목회에 지혜와 활력을 불어넣는 장이 될 것"이라며 "성경적 아버지 상을 회복하고, 남편의 역할을 배우며 자녀와의 관계도 성숙해지는 은혜의 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의: 이병일 425-772-215

## 임마누엘장로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및 선교 파송 예배드려



오래된 임마누엘장로교회 창립 26주년 기념예배

오래된 임마누엘장로교회 (담임 김대성 목사) 창립 26주년 기념 및 선교 파송 예배가 지난달 30일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15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대성 목사의 집례로 시작된 창립 감사 및 선교 파송 예배는 창립멤버인 서선호 집사의기도,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 김신원 장로)의 찬양, 김대성 목사의 말씀 선포, 성찬식, 캐나다원주민 선교 파송식, 제직 일동의 봉헌송, 김신원 장로의 교회 연혁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김대성 목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런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목의 말씀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신앙의 3대 요소

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며, 이 세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며 "임마누엘교회가 오래고 미주 지역,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성찬식 후 캐나다 원주민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 순서가 있었으며 14명의 단기선교팀이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위해 오는 7월 21일 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 여하우셋섬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고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자세대예배) 오전 11:30 \*한시씩 각 예배 15분 전  
대학친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영접하고, 이민2세를 영접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한여청년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김민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6:00

영어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 (213) 267-0030 www.churchla.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후 1:00  
중보기도(목) 오후 1:00  
금요찬양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6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건너 맞은편에)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영양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han.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영양아부 유초등 오전 10:50  
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15  
중고등부 오전 11:00  
유저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박은중**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리더십예배(분당)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더십예배(분당)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리더노 오후 6:30

GCEM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30(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어부, 유아,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수요새벽기도회 오후 7: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저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중주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하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cj.church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박효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213)381-949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임현수 목사 '북한 감옥 949일'의 증언...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를 출간한 임현수 목사. ©김신의 기자

#### 자서전 출판기념 감사예배 드려

“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쓸모 없는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도 쓸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거 같습니다.”

지난 11일 한국 만리현성결교회에서 열린, 자서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출판기념회에서 임현수 목사가 한 말이다. 북한 사역을 하다 지난 2015년 1월 억류돼 2017년 8월 9일 풀려난 임 목사는 이번 책에 그 때의 생생한 증언을 담았다.

이형로 목사(만리현성결교회)의 사회로 드린 1부 감사예배는 이길원 목사(용산교구협의회)의 대표 기도, 손영진 북음성가 가수의 특송, 박종순 목사(전 한기총 회장, 총신교회 원로)의 설교, 김창근 목사(무학교회)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광야 훈련소」(신 29:5-9)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박종순 목사는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은 명품이 될 수 없다. 고된 훈련과 비바람, 환란과 고통, 쓰라림을 겪은 자가 정금처럼 나오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은 임현수 목사님을 북한 훈련소로 보내셔서 훈련시키셨고, 정금이 되게 하셨다”며 “광야의 훈련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후 방승인 조혜련 집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기념행사에서는 송민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의 특별 찬양, 저자 소개, 축사, 저자의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축사를 전한 김하중 장로(前 주중대사 및 통일부 장관)는 “임현수 목사님께서 150년 이상 북한을 방문하셨고, 총합 5,000만불 정도의 인도적 지원을 하셨다. 그렇게 18년을 섬기셨는데 갑자기 체포됐다. 그리고 949일을 사시고 석방되셨다”고 했다. 그는 “북한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북한 밖이 아닌 북한 안에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일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책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극히 제한된

얘기만 했지만, 독자들이 북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손기철 장로(헤브리티 터치 미니스트리 대표, 건국대 명예교수)가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손 장로는 “18년 동안 사랑하고 섬기던 목사님의 억류 소식을 처음 접하고 너무 황당했다. 북한을 향한 분노가 일었다. 그러나 책을 통해 주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이밖에 이동휘 목사(전주 안디옥교회 원로), 노희송 목사(큰빛교회), 여나 마틴 의원(캐나다 상원의원)이 축사했다.

임현수 목사는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동안 글을 쓰실 기회를 주셔서 북한에서의 생활을 1,400 페이지 정도의 일기로 썼다. 그런데 다 빼앗기고 나왔다. 그때 잠시 하나님께 ‘중이 한 장만큼은 주셨으면 좋겠다’기도했다. 성경 강해를 외었다가 이니셜만 쓴 무슨 암호 같은 종이였다. 의심할 법한 종인데 북한에서 그냥 주었다. 제겐 그 하나가 정말 기적이었다”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정말 감사한 경험”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열어붙은 북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다”며 “북한은 비대칭전략이라고, 70년 동안 원자탄 만들고, 땅굴 파고 핵무기 만들고 이런 것 밖에 안했다. 저를 조사하는 북한의 해커들은 저도 기억 못하는 조그만 교회에서 집회했던 것부터 5년치 설교를 조사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변했다. 에스겔 골짜기 해골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군대로 변한 이야기처럼, 우리는 못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고 했다.

임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의 거룩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로 살아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 LA 동부, 라스베가스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아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윙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정동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세례와 함께 할거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30(토)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우영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1-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토)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춘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명의 나눔(매주 목)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토) 汉语查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최승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30 (토)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회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MP채널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el. (323)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 진용식 목사, 이단사역 40주년 및 상록교회 20주년 감사예배

#### “앞으로도 복음 전파와 이단 빠진 영혼 구출에 집중”



진용식 목사가 인사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장 진용식 목사 이단사역 40주년과 안산 상록교회 20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지난 6일 오전 안산 단원구에 위치한 교회당에서 개최됐다.

진용식 목사는 “40년 이단 상담 사역과 20년 상록교회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며 “앞으로도 복음을 전파하고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부 감사와 축하의 시간에는 특송과 워십, 특별찬양, 상록교회 20년과 진용식 목사 성역 40년 발자취 소개, 그가 개척했던 대전벨렐교회와 전주성산교회 사역 발자취 소개 등이 이어졌다.

이후 예정 합동 남중노회장 김상주 목사, 한장총 이대위원장 서영국 목사, 예정 합동 총회 총무 최우식 목사,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권병학 목사 등이 축사를 전했다. 남중노회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총신대 신대원 92회 동창회, 총회 이대위, 유대연/종교평 등에서는 축하패를 증정했다.

진용식 목사는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안식교)에 출석하다 1979년 대전 남곡리 안식교회에서 전도사로 처음 목회를 시작했다. 이때 복음의 진수를 접하고 회심, 당시 안식교인 300여명을 개종시켰다. 이듬해인 1980년 개종한 사람들과 남곡리에 벨렐교회를 개척해 4년간 시무했고, 1984년 전주 성산교회를 개척해 3년만에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켰다.

이후 1999년 이단상담 사역을 위해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뒤 안산 상록교회를 설립했다. 전국 16곳의 교회에 이단상담소를 개설했고, 2000년부터 10년간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2017년 예정 합동 총회 이단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진 목사가 상담해 회심시킨 이단 피해자는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 구원파 등에서 2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그는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대표회장장과 월간 <현대종교> 편집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이대용 기자



2012년 애틀랜타에서 열린 '패션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 © 앤드류 세퍼드

# 존 파이퍼 목사가 말하는 '용서에 관한 3가지'

##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의 뿌리에서 나온다”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하나님을 향한 갈망'(DesiringGod.org) 상담 코너를 통해 어릴 때 자신을 학대한 부모를 용서하는 길에 관해 언급했다.

파이퍼 목사는 팟캐스트 '존 파이퍼 목사에게 물어보세요'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을 보낸 청취자는 “17년 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았지만, 어릴 때 저를 학대한 부모님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주님은 용서를 가르치고 계신다. 다른 이들의 불의와 잘못은 용서할 수 있겠는데, 어릴 때 기억으로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 용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 알려달라”라며 도움을 구했다.

이에 파이퍼 목사는 우선 “용서를 할 수 있는 의지와 가능성은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의) 뿌리에서 나온다”면서 용서의 문제에 관해 3가지를 제시했다.

### 1. 용서의 경이로움을 깊이 간직하라

그는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 가장 죄책감을 느낄 때, 이같은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놀라움을 느낄 때, 예수님이 죄로 인해 치루신 대가의 경이로움을 놀랄 때, 내게 잘 못했던 이들과의 함께 하는 순간에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용서의 대가, 소망, 귀중함,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하여 얻은 용서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오래동안 깊이 간직하라”고 조언했다.

### 2. 공의의 심판자에게 모두 맡기라

이어 “그 다음으로 무엇인가 잘못했거나 정의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심판자에게 이를 맡기라. 당신이 심판의 끔찍한 무게를 견디며 직

접 살아줄 필요가 없다.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라. 심판은 지옥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발생할 것이다. 죄인들이 심판을 견디거나 예수님이 이를 견디실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지옥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를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 3. 용서는 당신에게 가장 유익하다

파이퍼 목사는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다른 누구보다 당신을 상하게 한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당신에게 더욱 해롭다”고 했다.

한편, 작가이자 유명 설교자인 조이스 마이어(Joyce Meyer) 목사는 작년 5월 용서를 주제로 한 설교를 통해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적 학대를 용서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했다”고 밝혔다.

마이어 목사는 지난 2016년 적어도 2백 번 이상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오명과 수치심 때문에 이러한 경험에 대해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는 복을 받게 됐다.

그녀는 “어린 시절 겪었던 학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위해 새 집과 노후의 모든 것을 제공했다”면서 “처음에는 이에 대해 마음의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접하기를 원하신다고 느꼈다”고 고백했다. 학대를 인정하지 않던 아버지도 3년이 지난 후 그녀에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고,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주었다고. 10일 뒤 그녀의 아버지는 기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았다.

마이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며 당신의 투쟁과 여정은 가치가 있음을 알기 원한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 '맥도날드' 부러움 사는 '기독교 기업' 칙필레

미국 소비자들의 칙필레(Chick-fil-A) 치킨버거 사랑에 자극을 받은 받은 맥도날드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치킨버거 메뉴 출시를 요구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설립된 전미가맹점주협회(National Owners Association)는 동료 운영자들에게 “최신 기술을 이용한 매장 혁신과 가격 할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매장들에서 손님이 줄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 측은 “우리는 반드시 성장을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경제 환경 속에서 가격은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미국 소비자들은 맥도날드의 퀘터 파운드 버거를 좋아한다. 그러나 치킨버거와 같이 맥도날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메뉴들 중 하나를 선보이지 못했다”고 했다.

협회는 맥도날드 측에 “우리의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치킨버거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그것을 먹기 위해 칙필레에 가야한다”면서 “우리는 치킨 맥너겟이 있고, 맥치킨은 매우 좋은 상품이다. 그런데 우리는 프리미엄 또는 그릴이나 크리스피 치킨 버거로 승부를 보지 않았다. 칙필레의 치킨버거에 맞설 수 있는 메뉴를



칙필레의 대표 메뉴인 치킨버거. ©페이스북

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칙필레는 올해 ACSI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6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피자업계 라이벌인 파파존스와 피자헛은 각각 80점으로 공동 2위를 기록했고, 도미노피자와 스타벅스(79점), KFC(78점), 타코벨(75점)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 내 칙필레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약 400만 달러(45억원)로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서브웨이의 점포당 평균 매출을 합친 것보다 많다.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인 칙필레의 이같은 성공의 비결은 식품의 품질과 맛 뿐 아니라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 까다로운 가맹점 운영 등이 꼽힌다.

##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8: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WS)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WS)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찬양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저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월일예배 오후 1:30  
이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라(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명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영감을 열라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T.O.T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분당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익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오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아침(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성서해설(월-토) 오전 5:30  
3부(영어) 오전 11:30 한국화교(화)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8: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주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토)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O)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으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공동체. ALL IN JESUS 복수제 20년 기념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로 세례 받아 함께 할러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아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신 오전 9:30(금)  
중보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짐새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토일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6:30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co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끄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안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ca.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거리에서 시위대들의 모습. ©Vox 영상

“복음성가가 공식 합창곡... 비폭력 시위 주도”  
**홍콩의 역사적 ‘민주 시위’**  
주도하는 기독교인들

지난 6월 9일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 개정을 두고 발생한 대규모 항의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주도하는 등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2월 대만에서 한 홍콩인 남성이 같은 홍콩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피한 사건이었다. 대만 당국이 홍콩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자 홍콩 정부는 범죄 용의자의 신병 인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재 맺고 있는 20개국 이외 다른 나라들로 범죄인 인도 조약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마카오와 대만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으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이 이 법안을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을 송환하는데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결국 홍콩 시민들이 이 법안이 홍콩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배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거리로 나선 것이다.

첫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측 추산으로 103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후 발생한 최대 규모였다. 2003년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우산혁명’ 당시는 각각 최대 50만 명 정도였다. 이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영국 가디언지는 “홍콩은 권리와 자유의 도시인데 (중국으로부터) 이 같은 정체성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게 되자 시위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목할 것은 이 같은 홍콩 시위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보였다는 점이다.

한창 시위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홍콩 시위대들이 복음성가인 ‘싱 할렐루야 투 더 로드’(Sing Hallelujah to the Lord)를 합창할 정도로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염 기른 덩치 큰 남성을 ‘여사’로 부르지 않아 해고돼”



데이비드 맥커레스 박사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홍콩 기독교인들은 시위대에 음식과 커피를 제공하고, 시위대를 해산시키려는 경찰을 비난하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홍콩인들이 종교의 유무를 떠나 송환법을 비판하는 교회와 신자들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NYT는 “이들은 모일 때마다 복음성가 ‘싱 할렐루야 투 더 로드’를 불렀고, 이 노래가 시위대에 영향을 주면서 공식 ‘합창곡’이 되었다. 이번 시위에 청년들의 참가도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정치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기독교협의회 회장 등 21개 종단 지도자들은 지난달 송환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오로지 법 개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무력 진압과 충돌 사건에 관해서도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시위 현장 인근에서 미사와 밤샘기도 등으로 송환법의 조속한 철회와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NYT는 “750만 홍콩 인구 중 개신교인과 가톨릭 신자는 전체 9분의 1에 해당되지만, 비폭력 시위를 주도하며 시위대에 위로와 격려, 영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지난 주말에도 이어졌다.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저항에 6월 12일 예정됐던 법안 심사를 연기하고, 캐리 램 행정장관이 7월 9일 마침내 범죄인 인도법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 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약 11만 5,000명의 시위대가 이날 송환법에 반대하며 사틴버스터미널까지 행진을 벌였다. 시위대는 이제 캐리 램 행정장관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AP통신은 “홍콩의 청년들은 시진핑 주석이 홍콩을 베이징 같은 도시처럼 만들려는 시도를 포기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별 혐의로 정부를 고소한 상태라고. 버밍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맥커레스 박사는 “만약 당신의 성(gender)이 유동적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에서 “약 183cm의 키에 수염을 기른 남성을 ‘여사’라고 부르기를 거절한 다음, 상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적 유동성에 관한 개인적 신념 때문에, 급작스런 심문 때문에 의사가 작업 현장에서 쫓겨나는 현상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길하다. 이로 인해 해고까지 된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비판하면서 “만약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좌석에서 불려나와 질문을 받고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종교적인 편협함과 편견을 보여주는 분노스러운 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018년 6월 25일, 상사와 메일을 주고 받은 후, 직장을 그만두었다. 상사가 보낸 메일에는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하길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의 결정과 계약을 탈퇴할 권리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는 “난 기독교인이며, 선한 양심상 DWP에서 요구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는 “난 차별의 직접적인 희생자이며, 내가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 “동성애자들이 비판하는 ‘전환 치료’의 진실”

마이클 브라운 박사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소위 말하는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해 이를 비판했다.

칼럼에서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노력(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 SOCE)이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과 거짓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노력들이 정말 그토록 위험한가? 반드시 금지되고 심지어 범죄화되어야 하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브라운 박사는 “비판하는 이들은 ‘전환 치료’는 바꿀 수 없는 무언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해롭다고 말한다. 마치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꾸려는 노력에 비유한다. 이같은 비유에 따르면, 왼손잡이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012년 서명된 캘리포니아 SB117 법안의 표현에 따르면,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노력은 레즈비언, 동성애자, 양성애자들에게 치명적인 건강의 위험을 초래한다. 이 위험 가운데 혼돈, 우울증, 죄책감, 절망, 좌절, 수치심, 사회적 소외, 자살충동, 약물남용, 스트레스, 실망, 자존감 하락, 타인에 대한 진실성의 하락, 자기 증오, 적대감, 부모를 향한 비난, 분노와 배신감, 성적·가정적 친밀감의 문제, 성기능 장애, 고위험적 성행위, 비인간적인 느낌, 스스로에게 진실되지 못한 감정, 믿음 상실, 시간과 자원을 낭비했다는 감정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가 2009년 성적 지향의 적절한 치료 반응에 관한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라고 밝혔다.

브라운 박사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탈동성애자로서 치료사 자격증을 갖춘 크리스토퍼 도일(Christopher Doyle)도 역시 이같은 입장에 분명히 반대하는사를 밝혔다고 한다.

브라운 박사는 “SB 1172안에 언급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심리학회 FT는 앞에 언급한 건강의 위험요소 28개를 뒷받침하는 실제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사실, 이러한 질병의 어떤 것도 동료 과학자들의 검토에 의해 문서화된 바가 없다. SOCE 치료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주장을 지지하는 과학 잡지들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 SOCE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피해가 왜 꼭돼 있다는 사실 역시 의심할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박사는 “사실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꾸기 위해 전기치료를 하거나 캠프에 모아놓고 고문을 한다는 내용 등은 SOCE의 노력을 범죄화하기 위해 사용된, 과장된 혐의들”이라며 “뿐만 아니라 SOCE를 통해 도움을 받은 이들도 많다”고 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의 브랜든 쇼월터 기자에 따르면, 원치 않는 동성애적 끌림에 대한 치료는 해롭다는 미국심리학회의 주장을 반박하는 새로운 연구가 나왔다. ‘원치 않는 동성애적 유혹을 받는 남성 신앙인들에 대한 치료의 효과’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작년 7월 23일 잡지 ‘The Lincere Quarterly’에 처음으로 실렸다. 연구자들은 때로 ‘전환 치료’라고도 불리는 SOCE가 참석자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이들은 125명의 미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후,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브라운 박사는 “쇼월터 기자도 언급했듯이, ‘전환 치료’라는 용어가 설명적이기보다 경멸적이다. 이 용어는 원치 않는 동성애적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노력을 비판하는 이들이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시민권운동을 ‘니그로공격운동’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멸적인 용어는 불공평하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



마이클 브라운 박사. ©크리스천포스트

리는 SOCE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왜 비난하는 이들의 언어를 사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SOCE의 유해성에 관해서는 이전에 가학적인 훈련의 예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형태의 심리치료에 있어서도 비슷한 학대가 있었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앞서 충격요법은 다양한 분야의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SOCE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대화치료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내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내적인 분쟁과 싸움의 뿌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 왜 SOCE를 홍보하는 책이 금지되고 불법화되어야 하는가? 왜 LGBT의 우려를 해결하는 전문적인 치료가 금지되고 불법화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브라운 박사는 “이것은 동성애자들의 최악의 전체주의적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SOCE에 관한 책을 싫어한다면, 이를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SOCE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 영 성공회 총회, 감리교와 통합 진전

## 통합 위한 공문서 작성에 동의

영국성공회 총회가 감리교단과 통합을 위한 과정을 지속하자는 제안을 지지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9일 보도했다.

최근 회의를 가진 요크(York) 총회 회원들은 두 교단 간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관계성을 정리한 ‘공식선언’이 포함된 여러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동의했다.

총회에서 승인한 발의안에 따르면,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양 교단 간의 교류가 동의를 거친 후 드러질 기념예배를 위해 추가적인 문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벤티리(Conventry) 크리스토퍼 콕스워스 사제는 “이번 발의안이 양 교단에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콕스워스 사제는 “역사적으로 가까운 사촌이자 언약의 동반자인 감리교회와 관계성 뿐 아니라 양 교단이 지난 1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일치된 몸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헌신의 신실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인식을 바탕으로, 분명하고 잘 숙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말했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섬기려고 보냄을 받은 세상을 위해, 이 일이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깊이 헌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총회에 지지를 보였다.

총회를 통과한 발의안은, 선교를 함께 해나가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이번 제안과 관련하여 영국성공회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려 또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일부는 감리교 장로와 성공회 사제의 차이 등 체도의 차별성을 문제로 삼았다.

성공회미래그룹(The Anglican Catholic Future)은 “최근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았다. 이는 더 큰 교회의 일치성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교회를 더욱 분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하기 어렵지만, 영국성공회는 단순히 한 명의 감리교 장로와 한 명의 성공회 성직자가 완전히 동등하다는 것을 불분명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관행은 그것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진 기자



감리교. ©감리교회 제공

기독교일보와 함께하는 여행

성도간의 교제, 단합, 힐링을 위한 시간!

# 교회 맞춤형 힐링 여행

교회 상황에 맞추어 원하시는 날짜, 인원,에 맞게 여행 플랜을 드립니다.



강추!

성도간의 교제의 시간으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운전하기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한 편안한 여행이었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기독교 신문사가 주최하는 여행이라 믿음이 가고 안전한 여행이었습니다. - 여행 다녀오신 분들의 소감

\$99 8월

역사 속 추억 여행

유람선 포함 8월3일(토)당일

에로우헤드 호수와 맥도날드 시작 점을 찾아

L.A.-맥도널드 역사 박물관-러시비페 -에로우헤드 호수 유람선-L.A.



Queen Tour Boat

\$190 노동절 연휴 특선

우리 바닥 보트, 섬드라이브 포함



9월 2일(월)당일

카타리나 섬 추억 여행



\$99 9월

대추나무 가을 여행 페달 보트 포함

9월 21일(토)당일

실버우드 레이크 보트타기와 대추 따라가기

실버우드 레이크 [페달 보트 타기]-대추농장[BBQ 파티] & [대추 따기]



추억 만들기 단풍여행

10월

비숍 단풍 \$199

10월 10일(목)

1박2일 Lake Sabrina Mammoth Lakes (숙박) June Lake



천 오백만불 보험가입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 대마햄프함초환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조규면 박사 Ph.D.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Korea Particle Therapy Cancer Center  
Chairman & CEO / 햄프함초 제품 개발자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250** +tax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 신이 내린 향암식물 대마 함초환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 ※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향암 식품입니다.
- ※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 ※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 대마씨 햄프씨드는 미국 타임지에서 슈퍼푸드 선정

- ※ 각종 **향암 식품**으로서 최고의 효과
- ※ **당뇨** 혈당수치 정상화에 크게 도움
- ※ 심장마비, 뇌졸중에 적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데 도움
- ※ 대장에 도달해 나트륨을 배출해 내기 때문에 **속변 제거 및 대장암 치료 예방**에 효과적
- ※ 햄프함초에 함유된 베타인(betaain)성분이 **혈관 청소**를 도움

함초는 Baja California 유네스코 지정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제품은 질병을 병리학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MANUFACTURED IN THE USA

CBD BAJAHAMCHO Inc.  
[www.hempbiousa.com](http://www.hempbiousa.com)

**Tel. 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 땅이 흔들리고



안성복 목사  
다우네제일교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독립 기념일인 7월 4일과 그 다음날인 5일에 캘리포니아에 각기 강도 6.4와 7.1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데스벨리 근처이지만, 그 먼 거리임에도 큰 지진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진 연구소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20년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LA 다저스 홈 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던 팬들이 스타디움 구조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에 놀라 비상구로 달려가는 소동이 벌어지고,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NBA 서머리그 경기 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 집안에 함께 있던 저희 가족들, 흔들림을 느끼고 열린 집 밖으로 나와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큰 진동을 경험한 후에 먼저 목상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한 번 흔드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발달한다 해도, 하나님이 한 번 흔드시면, 그 앞에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

니다. 인간의 과학이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옛날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이 외쳐대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저들은 놀라운 신기술인 '벽돌'을 만들었고, 또한 '역청'을 가지고 그 벽돌들로 성읍과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대 과학 문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 참 우스운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한 번 흔드시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문명과 과학도 그렇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면 그 앞에 우리가 쌓은 과학의 바벨탑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목상이 되었던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주후 17년에 있었던 대지진으로 인해 건물과 기둥이 무너져서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충만한 빌라델비아 시"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로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 외곽에 나가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복을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무너지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자랑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붙들어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20회)

### 시카고 선교캠프를 다녀와서(2)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은 한국과 미국 공히 선교사 파송이 현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 KWMA(한국세계선교사협의회)에서 Target 2030 Vision을 세우고 2030년도까지 10만명 한인 선교사 파송을 하나님께 올렸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27,000명에서 멈추더니 급기야 지난해부터 선교사 파송이 감소되기 시작했다.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으나 우선은 한국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 드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선교활동이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교회의 열정이 식어진 것이다.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세속과 타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 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그 현상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교회의 무능력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필자는 선교캠프를 통해 발견했다. 결론적으로 선교부흥이다.

교회가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속에서 부단히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는 가라" 이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마 28:19),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눅10:3),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등 온 민족을 향하여 가라는 명령을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는 모든 교회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수행해야 마땅하다. 교회를 안정되게 하고 그 다음 선교를 하겠다고 한다. 아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선교하여야 한다. 선교의 목적이 교회의 설립목적이다. 주님의 뜻이다.

필자도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오랜기간 그 순서를 바꾸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제자훈련 하고 그들이 변화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5년, 10년 아무리 제자훈련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더욱 걸잡을 수 없이 세속에 빠지고 교회를 세속으로 몰아 갔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주님에 대한 첫 사랑을 경험케 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성도로 만들어야 한다. "선교캠프"는 성경 안에 있던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들을

일깨워 준다. 성도들의 가슴에 타는 목마름을 준다. 열방을 생각하게 하고, 멸망의 길을 걷다가 결국 지옥 불에 떨어질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무력한 자인 자신을 사용하고 싶으신 마음을 깨닫게 된다. 잠자던 성도들의 영적 야성을 깨우는 힘이 있다. 내가 열방의 어느 한 민족을 찾아가서 전하는 한마디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 나아가 한 가정이 구원받는 가슴 벅찬 현장의 경험을 해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회복된다. 그런 열정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울며 기도하고, 선교 파송을 하며, 영적 동역자로서의 연합을 하는 자리. 그 자리는 교단도, 교파도, 개교회주의도 다 초월한다. 모두가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한다. 모든 인도하심을 오직 성령께 받기를 바라며, 주님의 명령과 언약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10:33) 이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한다. "선교 캠프"가 그렇다.

이제 미주에서의 선교부흥은 다민족과 어우러져 제2의 영적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강사로 왔던 Byron MacDonald 목사(롤링힐스 커버넌트 교회 담임)가 강의중 한 말이 있다. "나는 여러 한국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는 미국에 너무도 큰 사랑의 빛을 쬐었다고 그 빛을 어찌 알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나, 이제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미국에 이 선교캠프와 비전 사랑을 경험케 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성도로 만들어야 한다. "선교캠프"는 성경 안에 있던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들을

###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시대

인류는 오랫동안 농경문화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과 새로운 제조 공정으로의 전환에 힘입어 사회, 경제 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가내공업에 불과했던 섬유산업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기계적인 생산 방법을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를 산업혁명이라 부릅니다. 이 무렵부터 인류는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사회경제학자들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차, 3차, 4차 계속적으로 산업혁명들이 있어 왔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의상 그렇게 분류한 것이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학발전과 기술혁신은 18세기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을 발명했을 때만큼 전 세계를 바꿨다고 표현할 만한 발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산업혁명이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A. I.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나노기술 (10억분의 1 미터의 작은 입자를 만들어 활용하는 기술), 기술융합 네트워크 시스템 (미디어의 발달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술들을 쉽게 조합함으로써, 어마어마한 기술적 혁신을 일으키는 네트워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과 혁신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산업혁명 때에 그랬던 것처럼, 인간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과 체계까지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예측불허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간혹,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보

면, 세상이 어떻게 빠르게 돌아가는지, 인간 정서와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습니다.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고자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짠해집니다. "직장생활 하시느라, 사업하시느라, 얼마나 고민하고, 수고 하십니까?" 싶어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앞으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더 맞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방대한 지식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돌고구를 찾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 프로지

###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인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자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프로지의 특별한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 당화혈색소(HbA1c) 1%

###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 등이 줄어듭니다

###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생화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I, UCLA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활관안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 / prozusa@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이주섭 목사의 특별기고

# TheBibleLand 갈릴리의 역사 지리적 배경(1)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복음서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지역이다. 갈릴리란 이름은 원형(circularity)이란 뜻의 '갈릴'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의미는 원통(cylinder), 막대 노리개, 은 고리 (아 5:14, 에 1:6) 또는 어느 특정한 '지역'을 의미한다(수 13:2, 율 4:4). 그러나 정관사와 함께 쓰일 때는 언제나 고유 명사로 가나안의 북쪽 지역을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갈릴리'란 이름은 주전 15세기 이집트의 투트모세 3세(Thutmose III)의 원정 기록에 k-r-r이란 표현으로 처음 나타나며, 이후 고대 문서에 자주 등장한다. 구약 성경에서 갈릴리란 이름은 galil 또는 galila로 7번 나타난다. '갈릴리 땅'이란 이름은 열왕기상 9:11절에 1번, 이방의 갈릴리(Galilee of the Gentiles/people)란 이름은 2번 기록되었다 (사 8:23, 수 12:23).

갈릴리 지역의 경계는 언제나 일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서쪽 경계는 해안 평야, 남쪽은 이스라엘 평야, 동쪽은 요단 강, 갈릴리 호수, 홀라 평야를 경계로 하며 북쪽은 리타니 강(Litani river)까 지이다. 갈릴리 지역의 역사 지리적 배경과 성경적 기록에 대해 정리한다.

## 1. 역사적인 배경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성읍들에 대한 기록은 이집트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전 19세기 이집트 저주 문서에 상부 갈릴리의 게데스와 남달리의 벤세메스가 나타난다. 이후의 기록은 주전 15세기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투트모세 3세(Thutmose III)의 원정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의 원정 기록에 따르면, 홀라 평야에는 라이스, 하술, 긴네렛, 벤산, 아벨벤마아가, 이온이 있다. 이스라엘 평야에는 므깃도, 시므론(Shimron), 게바 쇼멘(Geba Shumen), 다아낙(Taanach), 이블르암(Ibleam), 욱느암(Jokneam)이 있다. 하부 갈릴리에서는 아다미 네겝(Adami Nekeb), 기손(Kishon), 아나하랏(Anaharath)이 있다. 아멘호텝 2세(Amenhotep II)의 원정 기록에는 쉘메쉬 네겝(Shemesh Adam), 아나하랏(Anaharath), 긴네렛(Chinnereth)이 나타난다. 군사적인 원정 기록에는 갈릴리를 통과하는 중요한 도로에 인접한 성읍들만 기록되었을 뿐 갈릴리의 내륙에 위치한 성읍들은 제외되었다. 주전 14세기에 기록된 아모르나 문서에는 한나돈이 중요한 도성으로 기

록되었다. 한나돈과 아나하랏(Anaharath)은 하부 갈릴리를 지나는 중요한 도로에 위치한 성읍들이다. 특히 한나돈(수 19:14)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인 벤네토파와 평야에 위치한다.

## 2. 지리적인 배경

갈릴리는 지역에 따라 역사와 문화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갈릴리의 서쪽과 남서쪽은 가나안-페니 키아(Canaan-Phoenicia)의 해양 문화와 가까우며, 갈릴리의 동쪽과 북동쪽은 시리아-아람(SyrianAramean)과 가깝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세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역사에서 늘 주변에 머물렀다. 사사 시대의 중심은 세겜과 실로이었고, 통일 왕국 시대의 중심지는 기브 아, 헤브론, 예루살렘이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언제나 변방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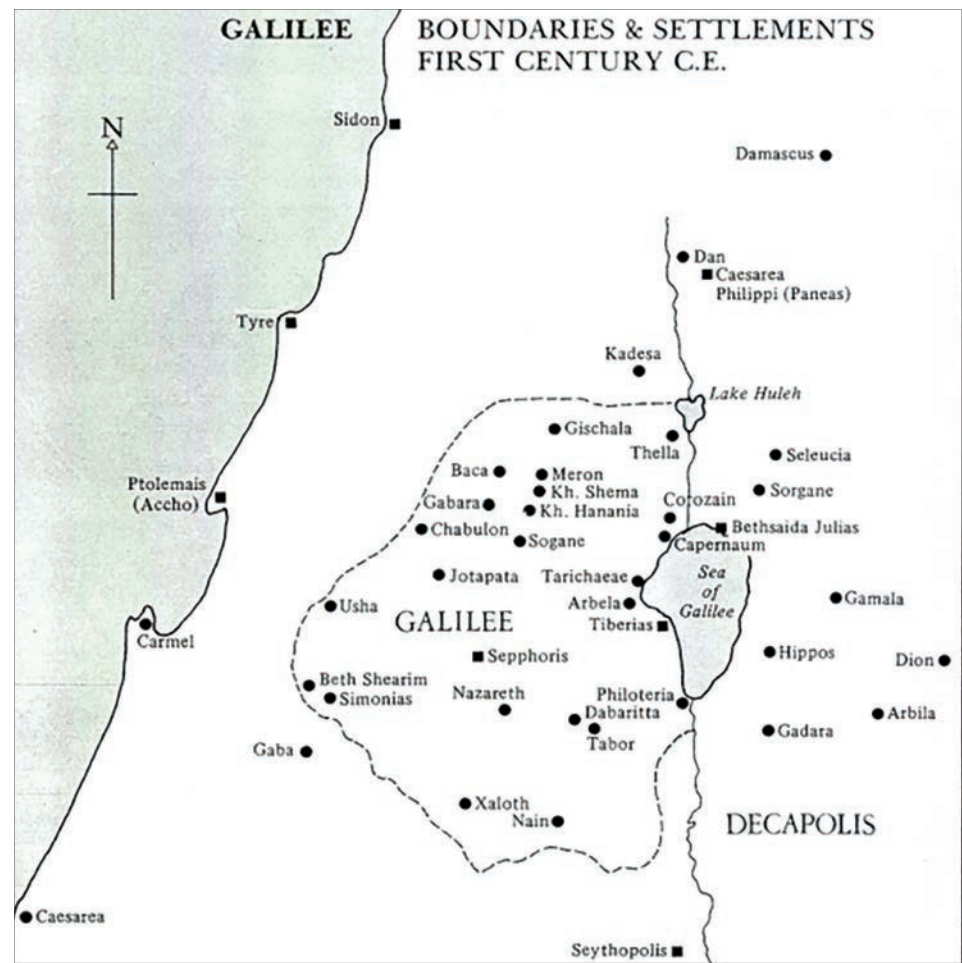
요세푸스는 갈릴리를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나누었다.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를 구분하는 경계는 벤하케렘 골짜기이다. 벤하케렘 골짜기로 나뉘는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상부 갈릴리는 높은 산과 급경사를 이루는 반면, 하부 갈릴리는 낮은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부 갈릴리의 가장 높은 메론 산(Mt. Meron)은 해발 약 1200미터이지만, 하부 갈릴리의 높은 산인 카몬 산(Mt. Kamon)은 겨우 598m에 불과하다.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의 차이는 높이만 아니라 지형(morphology), 기후(climate), 식물군(vegetation), 농업(agriculture)에 큰 차이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마을과 촌락은 주로 하부 갈릴리에 밀집되었다.

## 3. 갈릴리의 지형

갈릴리는 요단 대협곡(the Great Jordan Rift)의 단층(faulting)과 융기(uptifting)의 지각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 갈릴리 지역의 두드러진 점은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를 구분하는 급한 경사 면에 있다. 상부 갈릴리의 높은 산지는 남쪽에서 급경사를 이룬 반면, 북쪽에는 리타니강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상부 갈릴리의 남쪽에 노출된 세노마니안(Cenomani-an)과 투로니안(Turonean) 석회 암 층은 척박한 땅을 이루며, 이곳의 높은 지역은 가나안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 가운데

데 하나로 외부로부터 거의 고립되었다. 상부 갈릴리의 서쪽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발달된 몇 골짜기들에 의해 해안 평야와 구분되었다. 상부 갈릴리의 서쪽 해안 평야는 천연의 오지로써 이곳의 중심지는 지중해를 접한 두로, 약십, 그리고 약고이다. 정치적으로 세력이 확장되면 그들의 영향력은 해안 평야를 넘어 메론 산까지 진출했다. 메론 산의 동쪽으로는 남쪽으로 발달된 골짜기를 따

(Ginosar)가 있다. 탈무드에는 사흐니 골짜기를 베네토파(Beit Netofa) 골짜기로 기록하고 있다. 요드파트 골짜기는 베네토파의 북서쪽을 가리킨다. 베네토파(Beit Netofa) 골짜기와 평행을 이루는 남쪽의 또 다른 골짜기는 리몬(Rimon) 골짜기라 부르는데, 현재는 투란(Turan) 골짜기로도 불린다. 투란 골짜기의 남쪽에는 나사렛 산지가 있으며 그 남쪽은 이스라엘 평야이다. 하부 갈릴리



라 접근할 수 있었다. 메론 산의 동쪽에는 달톤(Dalton)과 알마(Alma- 하술의 서쪽)라는 두 현무암 지대가 있다.

하부 갈릴리는 동쪽 산지와 서쪽 산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부 갈릴리의 서쪽 산지는 나사렛 산지를 가리킨다. 나사렛 산지의 남쪽은 이스라엘 평야이다. 이스라엘 평야는 대부분 해수면 이하 지역으로 나사렛 산지의 남쪽과 이스라엘 평야 간에는 고저의 차이가 심하다. 누가복음 4:29절에 기록된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는 나사렛 남쪽을 가리킨다. 그러나 나사렛 산지의 북쪽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으로 급한 낭떠러지는 없다. 하부 갈릴리의 서쪽 산지 (나사렛 산지)와는 다르게 하부 갈릴리의 동쪽 산지는 북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는 반면 남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그래서 하부 갈릴리의 동쪽 산지와 서쪽 산지는 크게 대조적이다.

토셈타(Tosephta)에는 하부 갈릴리에 동서로 발달된 큰 골짜기들을 북쪽에서 남쪽 순으로 밝히고 있다. 벤하케렘 골짜기(Beit Ha-Kerem), 사흐니 골짜기(Sakhni), 요드파트 골짜기(Yodpat), 그리고 기노사르 골짜기

의 동쪽에 있는 여러 골짜기 중에 가장 북쪽의 아르벨(Arbel) 골짜기 만이 탈무드의 기록에 나온다.

상부 갈릴리는 가나안에서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다. 높은 산지에서는 강수량이 1,000mm에 이르지만 하부 갈릴리는 평균 강수량이 400mm 조금 못 미친다. 그러나 하부 갈릴리의 동쪽은 상시천과 샘이 많아 물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다. 상부 갈릴리의 높은 산지는 해마다 빙점 이하의 추운 날씨를 보이고, 눈이 내린다. 반면 골짜기들 특히 요단 계곡의 겨울은 온화하며 여름에는 언제나 무더운 날씨를 유지한다. 이런 다양한 기후로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많은 곡식과 과일들이 생산된다.



이주섭 목사

이런 비의 기적... 저를 구원할까?...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ijk@gmail.com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 이른 비의 기적 I

# 늦은 비의 기적 II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끼리를 걱정했던 이은태 목사가 수백억에 달하는 세 개의 빌딩과 영어 학교,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 대형 쇼핑몰과 크리스천 캠프장을 운영하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기적!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쇠퇴하고 있는 뉴질랜드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생생히 증거한다.

이은태 저음 / 1권 232면 / 13,000원

이은태 저음 / 2권 252면 / 13,000원

홈페이지 www.gum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이화장길6 전화 745-1007



# LA 중,소형교회 차세대 신앙 교육 위기, '연합 사역' 에서 해법 찾는다



예수마을교회에서 열린 연합 VBS 찬양

LA 한인 타운 교회 주일학교가 위기다. 주일학교 위기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타운 내 젊은 가정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와 주거비 상승에 한숨을 내 쉰다. 이들은 재정 부담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넓게 펼쳐진 자연에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LA 외곽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심지어 타주로 이사했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젊은 세대들의 타운 이탈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성에 교육도 한몫했다. 동성에 교육을 의무화하는 캘리포니아의 법안은 자녀를 둔 기독교인 젊은 세대들의 이탈을 부채질하는 이유가 됐다. 멀리 있는 일로만 알았던 동성애가 내 집 앞마당까지 들어온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타운에서는 공립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던 날 '학교 안 보내기 운동'을 펼치는 등 한바탕 소동을 치르기도 했다. 타운 내 젊은 세대가 줄어들자 그 효과(?)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바로 나타났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급감한 것이다. 타운 내에서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주일학교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다. 주일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미약할 정도다. 10여 년 전 만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아이들의 여름 최대 축제'라는 VBS가 이름이 무색할 만큼 규모가 작아졌고, VBS를 개설하는 교회도 많지 않다. 오전에 캘리포니아 태양 아래 물놀이를 하는 VBS가 이제 타운에서는 옛 추억이 됐다. 그나마 저녁 VBS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소규모화되는 주일학교를 따라 차세대 교육에 대한 예산도 인력도 대폭 줄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주일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일학교의 부재는 청소년, 청년부의 부재로 이어지고 교회는 고령화되고 있다.

### 차세대 교육, 교회 연합 사역으로 해결한다

예수마을교회 정인호 목사는 '교회 연합 교육을 통해 차세대 양육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다. 개교회가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몇 교회가 연합해 교육 및 인적 자원을 모은다면 어려운 일만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마을교회는 시편교회, 벤츄라교회, 꿈이있는교회와 연합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교회 연합 VBS를 개최했다. 비록 올해는 같은 교단 내 교회가 모였지만 3년 전부터 시작한 연합사역은 초교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Life is wild, God is good"라는 주제로 개최된 여름성경학교는 세속화되는 세상에서 차세대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 한 교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유스그룹 학생들이 자원 봉사자로 참여했다. 각 교회 청소년들은 다양한 스테이션으로 나눠 그룹별로 성경공부와 크래프트, 게임과 함께 신나는 찬양과 율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전했다.

정 목사는 "개교회가 하기 어려운 사역도, 연합을 통해 인력을 한 자리에 모으면 사역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된다"며 "연합 사역을 통해 서로의 은혜와 아이디어도 공유할 수 있어 유익하다"고 설명했다.

### 한인 이민교회, 차세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가는 타운을 걱정하면서도 정인호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 기독교의 미래와도 같습니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씨앗을 심지 않으면 수확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주일학교와 유스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교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당장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해도

아이들의 교육은 한인 이민교회의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 신앙 교육, 작은 교회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정인호 목사는 중, 소형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질 문제에 있어서는 "작은 교회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개 큰 교회로 가면 시설도 좋고 교육의 질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린 시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수준 높은 환경보다는 소규모 그룹에서 아이 컨택(눈 맞춤)을 통한 진실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화려해야만 반드시 좋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 목사는 "주일학교 교회 연합 사역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는 유스 청소년들의 연합 사역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며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한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 연합 사역은 주일학교뿐 아니라 청소년, 청년부까지 중, 소형 한인 이민교회가 차세대 교육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대학생들이 자신의 모교회를 떠나 타교회로 이동할 수 있다'는 연합사역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요즘은 청소년, 대학생들이 교회를 이동하는 것보다, 대학에 가면 신앙을 그만 두게 되거나, 교회 생활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한인 이민 교회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큰 그림을 가지고, 이들의 교회 정착과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지속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예수마을교회에서 열린 연합 VBS에서 진행중인 성경공부



예수마을교회에서 열린 연합 VBS에서 아이들과 스낵을 만드는 봉사자들



예수마을교회 정인호 목사, 정원경 사모



연합 VBS에서 진행중인 성경공부

## 모 집 과 정

### 학사과정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 석사과정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석사
- 기독교교육학석사

### 박사과정

- 목회학박사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교상담철학박사
- 기독교교육철학박사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목티슈  
 주일매거진  
 교미라고  
 마그네틱 원형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한인타운 한의원**

크기 **급매 1,150 sf**

문의 : (213)381-7575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매달 2커플에게 드리는 야외촬영(2시간) **Free**

계약에 관계없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께  
 무료로 촬영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정사진, 가족사진

**Scott Kim Studio**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scottkimstudio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킷 김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한인교회를 위한 **SUMMER EVENT**

**MAKER FUN FACTORY**  
 Created by God Built for a Purpose

**VBS T-Shirt**  
 Full Color Printing  
 Adult \$ 7.20  
 Kids \$ 5.50

그 밖에도 VBS를 위한 물티슈, 가방, 배너, 포스터, 초대장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프린트CD+CD봉투+라벨] 포함입니다.

**BANNER**

인기 상품 A형 스탠드배너  
 \$65 Stand X-Banner  
 \$140 Retractable Banner  
 \$160 (디자인 포함)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E-mail, junimedia@gmail.com

기독일보와 함께 하는 꿈의 성지순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예루살렘 단기선교 팀원 모집

믿을 수 있는 현지선교사의 인솔!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면서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 일시** 2019년 9월 30일(월) ~ 10월 11일(금) 11박 12일
- 대상** 평신도(장로, 권사, 집사, 일반성도 등)
- 접수마감** 2019년 8월 10일(토) 접수시 \$500 디파짓
- 모집인원** 40명 인솔 : 현지선교사 (GMS 소속, 강태운 선교사)
- 회비** \$2,500 (비행기표, 숙식 포함) 회비는 3회 분할 은행구좌로 납부

**은행구좌**  
Bank of America  
NAME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ING)  
라우팅넘버 : 121000358 계좌번호 : 325104511374  
Pay to the order: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ING)  
Check 보낼곳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 1회 > 7월 30일까지 \$500, 2회 > 8월 30일까지 \$500, 3회 > 출발 7일전 \$1,000
- \* 여행취소는 여행 30일 전에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위약금 \$500입니다

여행	상세 일정	교통편 및 식사
9/30일	LA공항 출발	항공, 기내식
10/1일	이스라엘 도착	전용차량, 현지식
10/2일	예루살렘 지역 (감람산, 승천 돔, 주기도문 교회, 벳바게, 파노라마, 눈물 교회, 깃세마네 동산, 기드론 골짜기, 통곡의 벽, 기혼샘, 히스기야 터널, 시온산, 다윗묘, 마가의 다락방, 베데스다 못, 채찍 교회 십자가의 길, 성묘 교회)	전용차량, 현지식
10/3일	사해 지역 (요단강 세레터, 맛사다, 엔게디폭포, 쿨란 공동체(사해 사본 발견지), 사해수영, 여리고, 시험산)	전용차량, 현지식
10/4일	베들레헴 탄생 교회, 우유동굴, 목자의 뜰헤브론, 막벨라 굴, 헤로디움, 드고아 아모스선지자 고향, 헤르툼 동굴	전용차량, 현지식
10/5일	사무엘 묘, 벤엘, 사마리아성, 아곱의 우물, 세겜, 그리심산, 실로 조망	전용차량, 현지식
10/6일	유대광야 요단계곡, 벤산, 텔단, 가이사라 빌립보, 골란고원, 팔복교회, 갈릴리 호수 배타기, 갈릴리 호텔 숙박	전용차량, 현지식
10/7일	오병이어 교회, 베드로 수위권 교회, 가버나움, 가나혼인교회,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 므깃도, 갈멜산 무흐라카, 지중해 가이사라	전용차량, 현지식
10/8일	에인카렘, 세례요한 고향, 벤세메스, 소렉골짜기, 아세가, 엘라골짜기, 벤구브린, 아둘람굴, 라기스	전용차량, 현지식
10/9일	네게브 남방, 브엘세바, 초대수상 벤구리 온묘, 엔 아브다트, 아브다트, 마크테시 라못 분화구	전용차량, 현지식
10/10일	자유시간, 저녁식사 후 공항 이동	전용차량, 현지식
10/11일	미국 LA 도착	항공, 기내식

주관 : 기독일보(사업본부) T.(213)739-0403, (213)330-511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 BIZPOST GROUP, 한우리여행사



LA 지역 제1차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

설교에 변화를 원하십니까?

성경 본문의 핵심인 원포인트로 흘러가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설교**를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존의 설교세미나와는 근본적으로 차별화 되는**,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엑기스 한 덩어리를 캐내어 수준 높고 참신하고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설교의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을 공개하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국에서 신구약을 전공(Th.M)하고 남아공에서 수사기법(효과적인 전달)을 전공(Ph.D)하고,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의 프레임〉**을 독창적으로 개발한 신성욱 교수의 놓칠 수 없는 독보적인 세미나에 설교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이동원 목사(지구촌 교회 원로)의 추천사** - “교수님은 보기 드문 설교학자이십니다.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이분에게는 촌철살인의 유머와 말씀의 깊이가 겸비되어 있습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한국강단의 문제를 극복할 설교의 대안을 찾는 후학들에게 신 교수님의 설교세미나를 강추합니다.”

**일시** 2019년 7월 29일(월) ~30일(화)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장소** **가든스위트 호텔 (Garden Suite Hotel)**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 (213) 383-0000)

**강사** **신성욱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 연구소 대표

- University of Pretoria (설교학 Ph.D)
- Calvin Theological Seminary (신약학 Th.M)
-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구약학 Th.M 수학)
- 총신대 신학대학원 (M.Div, Equiv.)
- 계명대 영어영문학 (B.A)
- 『이동원 목사의 설교 세계』 (두란노, 2014)
-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생명의말씀사, 2011)
- 『설교의 삼중주』 (킹덤북스, 2019) 등 저서 및 역서 다수
- 국내 및 해외 설교세미나 다수 인도

**| 참가비 |** \$100(사전등록 \$90)  
(이틀간 호텔식 점심식사 제공, 강의안 포함)

**| 등록방법 |** 당일 강의 장소에서 등록가능

**| 대상 |** 신학생, 목회자, 사모, 선교사

**| 주최 |** Kairos Ministry Academy

**| 후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 정흥호 교수) 기독교일보

**| 문의 |** 818-200-3807 (간사 Jay Lee)

강의 내용

〈첫째 날〉

〈둘째 날〉

시간	내용
9:00~10:30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의 이론과 실제1
10:40~12:10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의 이론과 실제2
12:10~1:10	점심식사
1:10~2:40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의 이론과 실제3
2:50~4:20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의 실제 샘플 Frame1(민 13, 14장)
4:30~6:00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의 실제 샘플 Frame2(눅 19:1-10)

시간	내용
9:00~10:30	인문고전과 설교1
10:40~12:10	인문고전과 설교2
12:10~1:10	점심식사
1:10~2:40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설교작성을 위한 전략1
2:50~4:20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설교작성을 위한 전략2
4:30~6:00	김현아 전도사(총신신대원 2008년 설교대회 대상 수상) 설교분석 및 비평